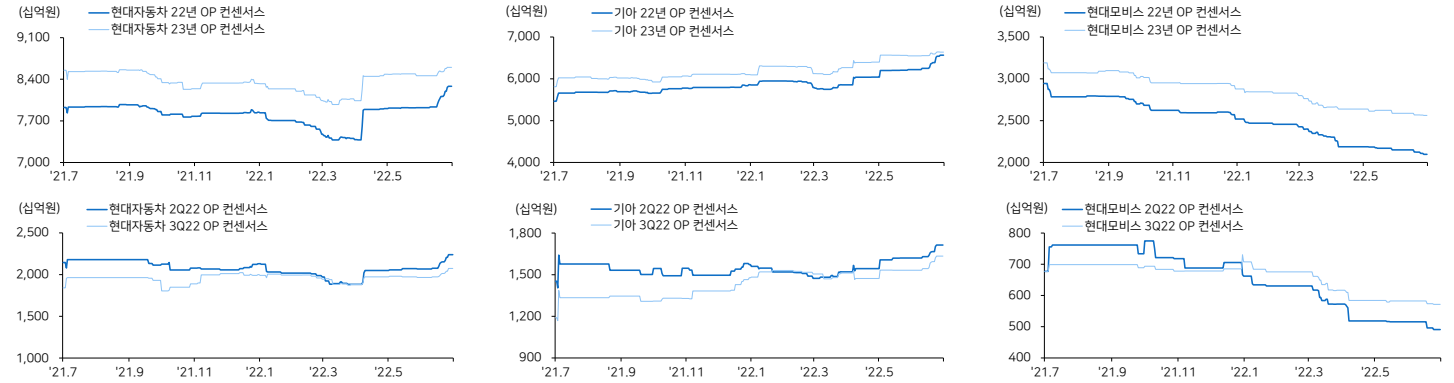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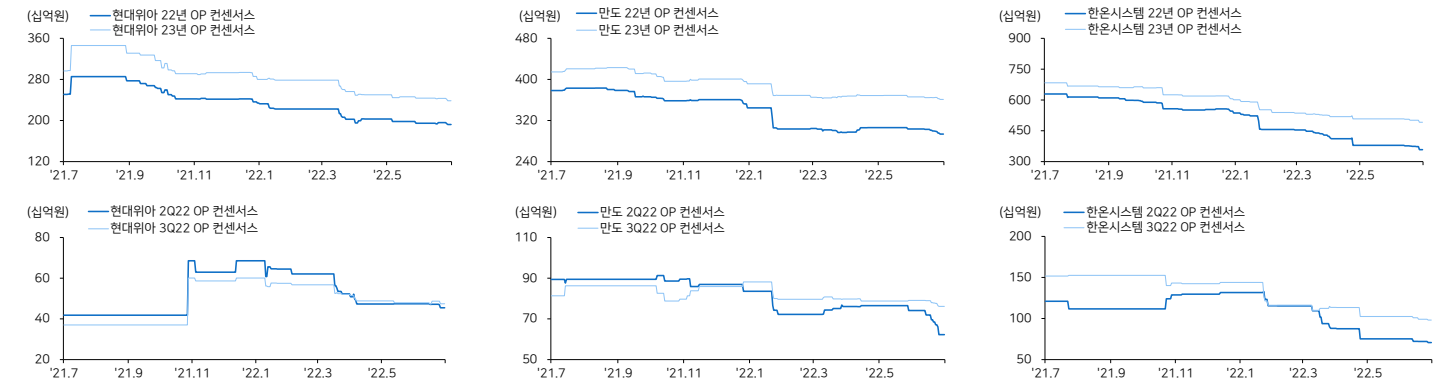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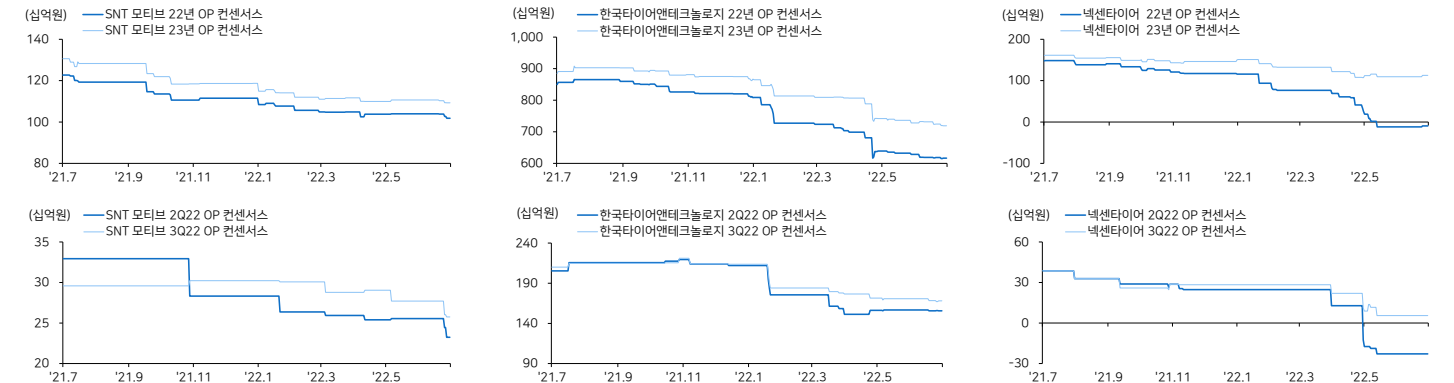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테슬라 바짝 쫓는 中 비야디...상반기 전기차 판매 세계 2위 (조선비즈)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라서, 테슬라가 1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차그룹은 5위를 기록. 전기차 판매 상위 20위 안에 중국 자동차 업체 12곳이 포함되는 등 중국 기업의 약진은 계속되는 중.
<https://bit.ly/3PKS8jJ>

韓·印尼 '니켈' 등 공급망 안정화... 전기차·배터리도 연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음. 또한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https://bit.ly/3S71BDn>

U.S. Senate Democratic electric vehicle tax credit plan faces questions (Reuters)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확대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중. EV 세액공제에 대한 제조업체당 2만 달러 차량 한도가 해제되고 새로운 4,000달러 중고 EV 세액 공제가 추가됐으며 대상 차량의 권장소매가격 조정됨.
<https://reut.rs/3Q0Euih>

Shanghai aims to see over 50% of vehicle sales be purely electric by 2025 (CNEV Post)

상해는 2025년까지 신차 판매 중 BEV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 이에 공공부문의 완전한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민간 부분의 BEV 구매를 장려할 계획. 2035년까지 총 자동차 중 BEV 점유율은 40% 초과를 계획.
<https://bit.ly/39SNL39>

내년 배달 자율주행로봇 인도 주행 허용...드론 안전성 인증 간소화 (조선비즈)

정부는 우선 현재 도로교통법 규제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실의 자율 주행 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을 내년 안에 허용해준다는 방침. 이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
<https://bit.ly/3bgnvEK>

LG전자, 美 사운드하운드와 후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삼성·현대차·네이버가 투자한 AI 업체 (조선비즈)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운드하운드와 자동차 음성인식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음. 사운드하운드는 컴퓨터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AI 음성인식 솔루션 전문업체.
<https://bit.ly/3PcyRz1>

Pricing buoys Stellantis as fight for electric markets heats up (CNBC)

Stellantis는 1H21 조정 EBIT 124억 유로를 기록, 컨센서스 94.2억 유로를 상회함. xEV를 포함한 고마진 차량의 높은 가격과 판매 덕분에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공급부족의 영향을 상쇄. 달러 강세 또한 EBIT에 5억유로 긍정적 영향.
<https://cnb.cx/3zDx2hA>

NIO aims to develop one phone per year, like Apple (CNEV Post)

NIO CEO는 향후 Apple과 같이 1년에 1개의 신규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자동차와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잘 연구해야 하며, 고객들은 이러한 연결성을 원하기 때문에 NIO가 스마트폰 산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3cNv5G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